

2020년 인도네시아 환경산업 뉴스레터

KEITI 인도네시아사무소



목 차

I. 인도네시아 환경 정책 뉴스	3
1. [환경법] 옴니버스법안,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	3
2. [녹색도시] 신[新] 수도, 비[非] 전기자동차 진입 금지	5
3. [신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규정 개정	7
II. 인도네시아 환경 뉴스	10
1. [폐수] 서부 자바주 법원, 섬유회사 유죄 선고	10
2. [물위기] 바딤섬 물위기	13

I 인도네시아 환경정책 뉴스 (환경법)

옴니버스법안, 사업허가 절차 간소화

파라향안대학교(Parahyangan University)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아세프 와를란 유수프(Asep Warlan Yusuf)는 옴니버스 법안이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2009년 제32호 법령 내용과 비교해 원칙적으로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아세프 교수는 지난 2월 28일 족자카르타(Yogyakarta)에서 환경산림부 주관으로 열린 옴니버스 법안 사회화 행사에서 “원칙적으로 환경 원리와 규범은 변하지 않았고, 일부 정책, 기술, 절차 등이 단순화되었다” 고 말했다.



또한, 아세프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규제는 4만 3,511개나 있어 규제의 일관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옴니버스법안의 적용은 인도네시아 전국적인 규제의 불협화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피력했다.

옴니버스법안의 사업의 환경허가제도와 관련해 밤방 헨드로요노

(Bambang Hendroyono) 환경산림부 차관은 “환경관리기준의 적용은 환경위험기준에 따라 적용 할 것이다” 고 말했다.

환경위험기준이 높은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현장실사를 수행하고 환경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밤방 차관은 “위험도가 중간정도 사업의 경우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UKL-UPL, Usaha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dan Usaha Pemantauan Lingkungan Hidup)¹⁾을 통해 관리하며,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낮은 사업은 등록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것이다” 고 밝혔다.

출처 : The Jakarta Post (2020년3월1일)

1) UKL-PKL은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관리 도구로서 사업허가서의 기반이다. UKL-PKL 문서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허가 취득에 필요한 문서로서 구성되었다.

신(新) 수도, 비(非) 전기자동차 진입 금지



정부가 새로운 수도의 교통수단 전체를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후속 조치들이 구상되고 있다.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12일 “동칼리만탄에서 북쁘나잠 빠세르(Penajam Paser Utara)군과 쿠타이 카르타네가라군(Kutai Kartanegara)에 있는 모든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것이며 사마린다시(Samarinda)와 발릭빠빠시(Balikpapan) 등 주변 도시의 비(非) 전기자동차 진입이 금지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로운 수도 개발은 통합 교통 시스템을 갖춘 기술 중심 녹색 도시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 사업에는 약 Rp 466조(약 337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루훗 장관은 전기자동차의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신(新) 수도에는 수력발전에너지로 운영되는 리튬배터리 생산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를 생산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청정하다고 평가받는 전기자동차 사용을 촉진 하는 것은 국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비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주요 재료인 코발트와 망간 성분이 풍부한 것도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운 수도는 25만6천 헥타르 부지에 개발될 예정이며 건물과 기반 시설이 5만6천 헥타르, 나머지 면적은 녹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도로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밝혔다.

출처 : The Jakarta Post (2020년3월19일)

신재생 에너지 규정 개정



정부는 녹색에너지 공약을 실행하기 위하여 2020년 제4호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을 공포하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BOOT(Build, Own, Operate, Transfer) 사업 방식을 폐기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많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은 BOOT 사업 방식이 프로젝트의 재정성을 약화시킨다고 말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또한 인도네시아의 유일한 전력 구매기관인 인니 전력공사(PLN)가 특정 조건(지역내 전력공급의 위기 상황 또는 지역내에 한 개의 공급기업만 있는 경우)에서 입찰하지 않고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국장인 하리스(Harris)는 규정 개정은 지연되고있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시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발표될 예정인 신재생 에너지 전력 단가에 대한 더 강력한 대통령령을 마련하고 있다.

하리스 국장은 “대통령령을 통과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당장 규제를 발표하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 성장이 정체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전체 전력 생산의 23%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제의 부재로 지연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수급 목표에 따르



면, 2019년까지 17.5%까지 달성해야 했지만, 실제 확인된 숫자는 12.36%에 그쳤다. 특히, 지난년도에는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이 전무했다.



이에, 2020년 제4호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의 경제성 향상에 대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이 규정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인니 전

력공사(PLN)에게 정부가 건설한 수력발전소,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보증제도는 정부가 지원하는 신재생 프로젝트가 에너지 수급 이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소와 폐기물 에너지화 발전소는 각각 관개용수 확보 및 폐기물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2차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새 규정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인니 전력공사(PLN)은 전기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고, 35,000 MW 규모의 신규 발전소를 개발해야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재정적 제약을 겪어 왔다.

출처 : 에너지광물자원부 (2020년3월18일)

II 인도네시아 환경 뉴스 (폐수)

서부 자바주 법원, 섬유회사 유죄 선고

서부 자바주 발레 반둥 (Bale Bandung) 지방법원 판사들은 카마르가 쿠르니아(PT. Kamarga Kurnia Textile Industry, KKTI)가 찌타룸강을 오염시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환경산림부가 해당 공장이 찌마히 (Cimahi)에 발생한 유해 및 독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판결이다.

환경산림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피르자 안드리안샤(Firza Andriyansyah)가 주재한 판결위원단에서 PT. KKTI에게 Rp 42억5000

만(약 30만1000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금액은 환경산림부가 요구한 Rp 182억보다는 적었다.



환경산림부의 라시오 리도 사니(Rasio Ridho Sani) 법무국장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그의 팀을

도와 사건을 처리한 전문가그룹과 검사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리도 국장은 성명에서 “찌타룸강 유역을 오염시키는 기업에 대한 사법 집행은 찌타룸 하룸(Citarum Harum)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이다” 라고 말했으며, 생활폐기물과 섬유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오염된 270km 길이의 강을 되살리려는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다.



그는 PT. KKTi에 대한 처벌이 다른 기업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며 환경산림부는 범죄 혐의나 비범죄적인 소송을 통해 오염자들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스민 라길 우토모(Jasmin Ragil Utomo) 환경산림부 환경분쟁조정국장은 찌타룸강 유역을 오염시킨 혐의로 다른 섬유 공장 3곳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찌타룸 강은 자카르타 대도시권에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쌀 공급량의 5%를 생산하는 서부 자바주 카라왕(Karawang)에 있는 벼농사에 관개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총 1,400M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력발전소 3기의 전력 공급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혼재되어 오랫동안 강이 오염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 환경전문가들은 씨따름강을 2013년에 최악의 수준의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강으로 선정하였다.

정부는 그 강에 대한 복구 및 정화 프로그램²⁾을 수립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자금 및 법 집행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있는 실정이다.

출처 : 환경산림부 (2020년3월1일)

2) Citarum Harum 프로그램: 2018년2월부터 시작하며 정부의 의한 ‘향기로운 씨따름강’이라는 이름의 씨따름강 복원사업 프로그램임.

II 인도네시아 환경 뉴스 (물 위기)

바탐섬의 물 위기



리아우주 바탐(Batam)섬의 저수용량은 향후 3개월의 사용량 밖에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결책을 찾는 동안, 주민에 대한 물 공급이 주 5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바탐섬의 수원인 6개의 인공 저수지는 강수량이 적고 집수지 손상으로 인해 저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빈사르 팜부난(Binsar Tambunan) 바탐섬 개발 위원회의 비즈니스 시설 환경 담당자는 바탐섬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저수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바탐섬은 아직 저수지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 2010년 바다를 댐으로 축조해 공사한 텀브시(Tembesi) 저수지는 사실상 가동 준비가 끝난 상태다. 해수 담수화 시설작업은 2014년 완료됐지만 저수지 물공

급을 위한 수도배관 등의 건설은 여전히 입찰 절차에 있다.



땀브시에서 무까꾸닝(Muka Kuning)까지 2.7km의 수도관을 건설하는 데는 약 Rp 457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프로젝트에 기간은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탐섬 식수 공급회사인 PT. Adhya Tirta Batam(ATB) 마리아 자코부스(Maria Jacobus)의 기업전략팀은 정부가 바탐섬이 물 위기의 위협을 완전히 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빈사르에 따르면 바탐섬은 자연수원으로 강이 없는 작은 섬인 싱가포르와 비슷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공 저수지에 의존하는 것 외에도 하수를 처리하여 재이용수로 사용하는 등 물 수요에 대한 방안을 다각화 해왔다.

바탐섬에서는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원수의 70%가 여전히 하수로 방류되고 있다. 이에, 내년부터는 하수 재활용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공업용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별 물 사업은 2025년에 완성될 예정이다.

출처 : Kompas (2020년3월5일)